

# 재외동포의

# 창

May 2017



# 한국축제의 원형이 살아있는 ‘강릉단오제’

## 전통문화 전승의 통로이자 문화 교육의 장(場)으로 기능



1. 위에서 내려다본 강릉단오제 현장.  
2.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국사성황신을 인간 세계로 모시는 대관령 국사성황 모시기 행사. 대관령 일원에서 열린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높은 날’ 또는 ‘신 날’이란 뜻의 수릿날이라고 부르는 날이다. 강릉단오제는 양기의 숫자 5가 두 번 겹치는 음력 5월 5일 수릿날의 전통을 계승한 축제이다. 본래 단오는 보리를 수확하고 모심기가 끝난 뒤에 한바탕 놀면서 쉬는 명절로서 농경사회 풍농 기원제의 성격을 지닌다.

음력 4월부터 5월 초까지 한 달여에 걸쳐 강릉시를 중심으로 한반도 영동지역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전통축제이다. 음력 4월 5일 신주빛기로 시작하여 4월 15일에는 대관령에 올라가 국사성황사에서 성황신을 모셔 강릉 시내 국사여성황사에 봉안한 뒤 5월 3일부터 7일 저녁 송신제까지 강릉 시내 남대천 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단오제 행사를 벌이는, 장장 30여일 이상에 걸친 축제이다.

천 여년의 역사를 가진 강릉단오제는 민중의 역사와 삶이 녹아있는 전통축제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특히 강릉단오제는 한국의 대표적 전통신앙인 유교, 무속, 불교, 도교를 정신적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의례와 공연이 있는데 이를 형성하는 음악

과 춤, 문학, 연극, 공예 등은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준다.

오랜 역사의 과정을 걸쳐 온 전통문화 전승의 장으로 제례, 단오굿, 가면극, 농악, 농요 등 예술성이 뛰어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그네뛰기, 씨름, 창포머리감기, 수리취떡먹기 등 한국의 역사와 독창적인 풍속이 전승되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축제이다.

한국축제의 문화적 원형이 살아있는 강릉단오제는 오늘날 전통문화 전승의 통로이자 문화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강릉단오제위원회를 통하여 행사의 계획과 진행, 예산 책정과 집행 등에 전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 축제로서 행사 기간 중 21만 강릉시민을 포함하여 국내외 관람객 등 약 100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강릉단오제는 그 문화적 독창성과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아 2005년 11월 25일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등재되었다. **창**



# CONTENTS

## 2017. 05



- 02 한국의 얼      한국축제의 원형이 살아있는 '강릉단오제'  
전통문화 전승의 통로이자 문화 교육의 장(場)으로 기능
- 04 특집            文대통령 취임사 "소통·화합으로 국민 섬기겠다"  
동포사회 "대내외적 위기 극복해 잘 이끌어달라"
- 06 화제            26개 한상기업 인턴십 채용 36명 "창업 목표로 노력"  
한상 면접관 "학력 등 스펙보다 품성과 열정 중시"  
"재외동포 친구들과 국경 없는 우정 나누겠다"  
제6기 OKFriends 봉사단 발대식·워크숍 개최
- 08 기획            한국·터키 수교 60주년 맞는 터키 한인사회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사업 펼치고 양국 문화교류에 기여
- 10 글로벌 코리아    수천억대 기업 일군 재외동포 '태권도 그랜드마스터' 김종욱 회장  
'수출 지원' 역할 자임하고 나선 김창섭 헝가리 MJ그룹 대표  
19년 만에 미 연방 하원의원 탄생하나... LA 보선 결선 진출한 로버트 안
- 12 동포소식        재외동포 언론단체 9년 만에 통합, '세계한인언론인협회'로 새출발 외
- 15 동포 캘린더    6월 달러서 제19회 미주한인체전... 19종목 4천 명 참가 외
- 16 유공동포        '아시아의 피카소' 고려인 신순남 화백  
고려인의 강제이주 수난사, 그림으로 형상화
- 17 주목! 차세대    13일간 1천km 자전거 타고 투표 참가한 호주 한인 청년 이한결 씨  
브리즈번-시드니 여행... "한 표의 중요성 알리고 싶었다"
- 18 지구촌통신원    한국전 참전 미공개 사진 600장 모아 '6·25전쟁의 터키군' 사진집 발간  
올여름 서울 전시... "잊혀진 한국전 참전 터키군의 사연, 발굴·보존해야"
- 19 한민족공감      스웨덴·미국 입양 한인 자매 DNA 검사로 30년 만에 극적 상봉  
유전자 검사로 확인... 올 여름 생모 찾으러 모국 방문 계획
- 20 OKF 뉴스        세계한인회장대회서 평화통일·평창올림픽 홍보 논의 외
- 22 동포문학        생명의 신비  
노은주 \_ 인도네시아 \_ 2016 동포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 23 우리말배워봅시다
- 24 고향의 맛·멋      한겨울 바람, 추위, 눈이 함께 만드는 진미 '황태해장국'  
황태구이정식과 곁들이면 '최고의 밥상'
- 26 재단공지



### 표지 이야기

5월 10일 국회에서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화 화합을 국정운영 지표로 삼아서 국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동포사회에서는 신임 대통령의 취임을 환영하며 대내외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대한민국 호(號)를 잘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발행인 : 주철기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文대통령 취임사 “소통·화합으로 국민 섬기겠다”

## 동포사회 “대내외적 위기 극복해 잘 이끌어달라”

### 文대통령 “국민대통합 시대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 행사를 하고 임기 5년의 제19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선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며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며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고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 보수 진보 갈등 끝나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정경유착이란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동포사회 “대한민국호(號) 잘 이끌어달라”

재외동포들은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위기 에 선 대한민국호(號)를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정 공백으로 소원해진 한미 관계, 악화된 한일·한중 관



2



3

계를 정상 궤도에 올리고 재외국민의 지위와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힘써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대통령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한 혼란을 딛고 내부적 안정을 되찾고 더욱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분열상을 노출해온 고국에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면서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통합을 당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원균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장** “국민을 통합하고 헌신하는 희망의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남북 관계는 과거 청와대 비서실장 경험이 있으니 잘 풀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김영천 워싱턴한인연합회장**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새로 선출됐으니 나라를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 특히 한미 동맹에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고, 한미 관계가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북한 문제는 평화적으로 대화해서 풀어야 할 것이다.”

1.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앞서 국회에서 5부 요인들과 환담을 하며 ‘소통과 화합’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3.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밝혔고, 트럼프는 “한미는 위대한 동맹관계”라고 답변했다. 양국 정상은 조속한 시일에 정상회담을 여는데 합의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KACE) 대표** “한반도 주변 어떤 국가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새 대통령은 외교적 수완을 잘 발휘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는 평화적으로 남북문제를 풀자는 국민적 염원이 깔린 것 같다. 무엇보다 일방주의로 가는 미국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으리라고 본다. 한미 관계를 슬기롭게 잘 풀어야 한다.”

**김현욱 멕시코 한인회장** “국민을 위해 변화를 주도하고 경제를 되살리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동서화합을 이끌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으면 한다.”

**진영민 베이징 한국상회회장**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치열한 경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향후 중국에 진출해있는 한국기업들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줄길 바란다.”

**오공태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중앙본부 단장** “과거사문제에 대해서는 한일이 서로 물러나려고 하지 않고 있다. 한국 국내 여론이 반발하지 않고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풀기 힘든 과거사 문제를 안보나 경제 문제와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

**박용덕 터기한인회장** “요즘 해외 한인들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처한 상황이나 외교 탓에 자존심이 상하고 위축된다. 새 대통령은 해외 동포들이 자부심을 품고 어깨를 펼 수 있도록, ‘코리아 브랜드’ 가치가 더는 떨어지지 않도록, 당당하고 균형 잡힌 외교를 펼쳐주길 당부한다.”

**남창규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고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주변 강대국과 관계가 경색돼 안타까운 것이 대다수 해외 교민들의 심정이다. 난국을 잘 수습하고, 당파 간에 화합해서 다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젊은 사람들의 취업난이 해결되고, 경제적으로도 좀 더 부강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 26개 한상기업 인턴십 채용 36명 “창업 목표로 노력”

## 한상 면접관 “학력 등 스펙보다 품성과 열정 중시”



15개국에서 온 26개 한상기업은 면접을 통해서 청년인턴십 2기로 36명을 선발했다.

한상기업 청년인턴십 2기에 선발된 청년들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출국에 앞서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사전교육에 참여했다.

전 세계 15개국에서 온 26개 한상기업이 4월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한상기업 청년인턴십 2기 면접’에서 국내 청년 36명을 인턴으로 선발했다.

한상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면접 기준에 대해 “서류상 스펙보다는 올바른 품성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열정을 우선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면접에 참여해 3명의 인턴을 뽑은 조지아 개런티메탈의 이광복 회장은 “해외에서 근무하려면 현지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겸손한 자세가 필수”라며 “면접에서 열린 사고를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턴으로 업무 보조를 하면서 현지 관광이나 하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면 시간 낭비”라며 “현지서 자수성가한 한상의 사업 노하우를 하나라도 더 배워 창업까지 하겠다는 적극적인 포부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선발된 청년들에게 “청년의 해외진출은 우리 경제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발판이라 성공적으로 인턴십을 마치기 바란다”며 “의욕도 중요하지만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 사고가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상기업 면접을 통해 선발된 이들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클래드라이브 호텔에서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2기’ 교육을 받았으며, 5월 말까지 미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15개국의 26개 한상기업으로 파견돼 6개월간 인턴

십을 진행하게 된다.

재단은 사전교육으로 재외동포 사회와 한상에 대한 이해, 직무·소양, 해외 안전 수칙, 글로벌 매너 등에 대해 소개했다. 교육 기간에 인도에서 건축·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김창현 AA Studio 대표의 ‘글로벌 자존’을 주제로 한 강연회도 열었다.

아르헨티나 한상기업인 비즈드래곤(Biz Dragon)에 채용된 김승보(26, 세종대 졸업) 씨는 “첫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예정에 없던 재면접을 요청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렸더니 다행히 합격했다”며 “글로벌기업을 창업하는 게 목표인데 시야도 넓히고 비즈니스 실무도 배우는 좋은 기회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만의 온라인 게임 기업인 해피톡(Happy Tuk)에 합격한 최아름(23, 아주대 졸업) 씨는 “대학 졸업 전 학교 프로그램으로 중국 견학 후 중화권 국가에 취업하려는 목표가 생겼는데 인턴이 돼 꿈에 한발 짝 더 다가선 느낌”이라고 “인턴이지만 주인의식을 갖고 제대로 일해 보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재단은 지원금 형식으로 인턴십 참가자들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기업에서는 숙식 제공 또는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한다.

이어서 5월부터 ‘한상기업 청년인턴십 3기’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 후 6월에 인턴 희망자 신청을 받아 7월에 기업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 “재외동포 친구들과 국경 없는 우정 나누겠다”

## 제6기 OKFriends 봉사단 발대식 · 워크숍 개최

재외동포재단은 2017년 ‘제6기 OKfriends 봉사단’ 99명을 선발해 4월 7~8일 이틀간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발대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2년에 처음 발족한 OKfriends 봉사단은 매년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선발해 지난해까지 205명이 봉사단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재단이 실시하는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초청연수 등의 사업에 통역, 행사진행, 멘토링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재단은 봉사활동을 통해 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차세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워크숍은 7일 오후 ‘재외동포 이해 연수’를 주제로 참가자들에게 재단의 차세대 사업에 대한 소개 후 봉사활동을 펼치게 될 ‘재중동포 청소년 모국 방문’ ‘청소년·대학생 초청연수’ ‘한글학교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역할을 설명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주철기 재단 이사장 주최 만찬에 참석 후 봉사단원간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친목행사 후 봉사단 활동에 대한 자체 토론을 벌였다.

8일에는 6기 봉사단의 임원진을 선출해 봉사기간 달성 목표 등 활동 계획을 세웠다.

재단은 2017년 제6기 봉사단으로 27명의 5기 봉사단과 72명의 단원을 신규로 선발했다. 이 중 37명은 한국에서 수학중인 재외동포 장학생이다. 제6기 봉사단은 워크숍을 통해 재단 소속 봉사단으로서 자긍심과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재외동포 지원 총괄기관인 재단 사업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사명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6기 봉사단장으로 뽑힌 강아나 양은 “재외동포는 사는 나라도 국적도 제각각이지만 뿌리가 같기 때문에 처음 만나도 낯설지 않다”며 “고국을 찾는 친구들이 서먹함이 없도록 잘 배려하고 진정성 있는 교류를 통해 국경 없는 우정을 나누겠다”고 각



‘제6기 OKfriends봉사단’ 발대식 및 워크숍이 4월 7~8일 이틀간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열렸다.



OKfriends봉사단은 워크숍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017년도 재외동포재단 차세대 초청행사에서의 봉사활동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오를 다졌다.

5기에 이어 6기 봉사단원으로 참여한 임태균 군은 “해외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재외동포를 이해하고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라는 동질감을 느꼈기에 한 번 더 봉사를 하려고 참여했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리더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게 된 것은 큰 수확”이라고 기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재외동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철기 이사장은 워크숍에 참여한 봉사단원에게 “한국의 젊은 세대가 재단의 OKFriends 봉사단 활동을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하여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와의 중요한 연결 매개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봉사활동이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돼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장]**

# 한국 · 터키 수교 60주년 맞은 터키 한인사회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사업 펼치고 양국 문화교류에 기여



올해는 한국-터키 양국은 물론 터키 한인사회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수교 60주년을 맞은 것이다. 한국과 터키는 1957년 3월 8일 정식으로 수교하고, 같은 해 6월 17일 앙카라에 한국 대사관이 문을 열었다. 터키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4차례 걸쳐 2만2천6명을 파병했으며 유엔 참전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741명이 전사했다.

양국은 말 그대로 혈맹관계로 맺어졌다. 수교 이후 문화예술 단으로 터키에 파견된 후 정착한 분들과 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으로 초기 한인사회가 형성됐다. 터키 한인회는 1989년 5월 여행사를 경영하는 윤대우 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시작됐고 현재는 박용덕 17대 회장이 한인회를 이끌고 있다.

외교부 집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터키 거주 한인인은 3천 839명이고 이중 유학생이 221명이다. 한인회는 1천979명이 거주하는 이스탄불을 비롯해 앙카라, 이즈미르와 동남부지역에

결성되어 있다. 터키 거주 한인인은 유학생 이외에 지상사 및 건설현장 파견 근로자와 무역, 관광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터키 한인회는 이스탄불에서 매년 송년회, 봄철 체육대회를 가장 큰 행사로 진행하고 있고 한글학교는 이스탄불에 2개, 이즈미르와 앙카라에 각각 한 개씩 운영되고 있고 이스탄불에는 유치원도 있다. 터키는 최근 시리아 내전과 난민 문제, 테러 발생 등의 문제에 직면해있기는 하나 2000년대 들어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2년 이후 국내 총생산이 3배나 증가하면서 세계 17대 경제국으로 성장했다. 터키 시장의 잠재력은 한국기업의 진출로 이어지고 있다. 터키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현대로템, 효성, 포스코, 엘지에어컨, 만도기계, KCC, 카스, KT&G, 한화 큐셀, SK건설, CJ 등 다수에 이른다. 현대자동차는 터키에서 연간 20만대가 넘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 Turkey



4



6



5

- 1, 2. 한국과 터키가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터키 최대 이슬람 사원인 이스탄불의 블루모스크와 전통시장 그랜드 바자르.
3. 한국·터키 수교 60주년이 되는 지난 3월 대림산업, SK 건설 등 국내 건설사와 터키 현지 업체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세계 최장 현수교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사진은 차나칼레 교량 투시도.
4. 터키에 분 한류 바람... 2012년 2월 터키 앙카라 대학교에서 한 여대생이 태극기와 터키 국기를 네일아트한 손을 보여주고 있다.
5. 2013년 9월 8일 터키 이스탄불 울케르 실내경기장에서 처음 열린 K팝 공연에 현지 한류 팬들이 열렬한 호응을 보내고 있다.
6. 터키 프로여자배구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연경 선수가 경기장을 찾은 교민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특히 한국 건설업체는 지난해 터키에서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보스포루스 제3 대교와 유라시아 해저터널을 준공한 데 이어 올해 3월 18일에는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나칼레 대교 착공식을 했다. 대림산업과 SK건설이 터키 현지 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해 일본 업체를 제치고 프로젝트를 따낸 것은 우리 건설업체가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나칼레 현수교 프로젝트는 터키 공화국 설립 100주년(2023년)을 앞두고 진행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한·터키 양국의 문화, 스포츠 교류도 경제 분야 못지않게 활발하다. 터키 한인회에 따르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와 K-Pop을 좋아하는 터키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류 팬은 30만 명 규모에 달한다. 터키의 태권도 인구는 10만 명에 이르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효자 종목으로 꼽힌다. 터키 최고 스포츠 종목인 축구는 2002년 월드컵대회 이후 이을룡 선수가 터키리그에서 뛰었으며,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에서 터키를 일약 4강으로 끌어올리는 이변을 연출했던 세솔 귀네슈 감독은 K리그 서울 FC 감독을 맡은 바 있다. 특히 2011년 터키에 진출한 김연경 선수는 페네르바체 배구팀의 간판스타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류 확산과 더불어 터키 내 한국어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터키 정부는 지난 2월 초·중·고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제2외국어에 한국어를 추가했다. 터키에서 한국 정부가 펼치는 인도주의 활동도 두드러진다.

터키 주재 한국 대사관은 터키 재난위기관리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터키 남동부 가지안테프 주 이슬라히예 제2난민임시보호센터에서 시리아 난민학교 개교식을 개최했다. 이 학교는 한국이 직접 지원해 지난해 세운 시리아 난민학교 4곳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터키에서 유엔아동기금 차원의 간접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직접 지원으로 시리아 난민학교를 세운 나라는 벨기에, 뉴질랜드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다.

터키 정부 관계자는 “6·25 전쟁에 참전한 터키군이 한국에 세운 앙카라학교가 1970년대까지 운영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 한국이 터키와 손잡고 난민학교를 세우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고 언급했다. 터키의 한국전 참전용사 가운데 현재 생존한 분은 3천여 명이고 대부분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터키 한인회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사업회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양국 우호협력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서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용덕 한인회장은 “세계적인 관광객대국인 터키의 군부 쿠데타와 테러 발생으로 관광객이 끊겨 한인 식당이 문을 닫는 등 관련 업계에 타격이 매우 컸다”면서 “지나친 저가 여행으로 한국 관광객에 대한 현지 관광업계의 평판이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회장은 이어 “터키 한인사회는 터키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해 친한 인사와 한류 팬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의 우수한 문화를 공유하는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 조만간 서울 사무소 개소... “여생, 조국에 기여하고 싶다” 수천억대 기업 일군 재미동포 ‘태권도 그랜드마스터’ **김종욱** 회장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찾으러 왔습니다.” 미국 뉴욕·뉴저지 일대에서 ‘태권도 그랜드마스터 김’으로 불리는 김종욱(81, 태권도 9단) ‘황금손스테이트 아일랜드’ 회장이 15년 만에 고국을 찾았다. 김 회장은 뉴욕·필라델피아·코네티컷·뉴저지 등지에서 태

권도장인 ‘드래곤 김 USA 스쿨’ 12개를 운영한다. 부동산과 영화산업에 뛰어들어 설립한 황금손스테이트아일랜드는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다.

뉴욕의 자치구 스테이트 아일랜드에 사는 김 회장은 3월 12일 미국호텔경영학회 아카데미에서 주는 ‘파이브스타 다이아몬드클럽 - 평생업적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매년 호텔, 레스토랑 경영인과 스포츠맨 가운데 귀감이 되는 인물을 선정해 수상한다. 김 회장이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태권도 사범이자 사업가로서 뛰어난 업적을 이뤄 현재와 미래 세대에 귀감이 된다는 것.

지난해 10월에는 모나코에서 한국인은 물론 동양인으

로는 처음으로 ‘스포츠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스포츠 레전드상’을 받았다.

“얻은 만큼 기부해야 한다”는 철학을 실천에 옮긴 그는 지역 병원이나 봉사 기관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런 공로로 스테이트 아일랜드 정부는 2005년 그의 이름을 딴 도로 ‘그랜드마스터 김 웨이’(48km)를 만들었다. 뉴욕시장과 뉴저지주지사, 연방상원의원 등으로부터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김 회장은 3월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42년 전인 1975년에 미국에 건너가 나름 성공했다고 자부한다. 이제는 이 성공을 바탕으로 조국에 기여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오는 29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각계각층의 인사를 만나 기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 등을 찾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성공담도 들려줄 예정이다. 그는 “내가 잘해야 재미동포가 대우를 받고, 고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살았다”며 “여생을 고국을 위해 살고 싶다. 조만간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고 활동 반경을 고국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국기업의 유럽 전진기지로 헝가리 추천... 물류사업 유망 ‘수출 지원’ 역할 자임하고 나선 **김창섭** 헝가리 MJ그룹 대표

“헝가리는 중부 유럽에서 도로망이 가장 잘 정비된 나라인 데다 7개국과 인접하고 있어서 물류 사업이 유망합니다.” 헝가리에서 무역·유통으로 연간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MJ그룹의 김창섭(50) 대표는 4월 28일 한국 기업에 유망한 분야로 ‘물류·유통·제조’ 등을 꼽았다. “헝가리는 1천만의 인구가 시장이 크지 않지만, 오스

트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유럽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 대표는 2007년 중소기업의 해외 법인장으로 헝가리에 이주했고 2010년에 창업했다. 보세구역에 창고를 보유하고 트럭으로 유럽 전역에 제품을 보낼 수 있는 면

허도 가지고 있어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소비제품 보호필름, 자동차 부품, 산업용 장갑 등이다. 11년째 헝가리에서 비즈니스를 해온 경험을 살리려고 이번에 세계한인무역협회에서 발족한 '글로벌 마케터'에 지원했다.

그는 헝가리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으로 "빨리빨리"가 통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라고 조언했다.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래업체도 마찬가지로 쉬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거죠. 퇴근 후의 삶을 무척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잔업이나 야근을 잘 안 하게 만듭니다. 대신에 규정을 잘 지키고 근무시간에는 무척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당황하

지만 좀 지내보면 이 시스템이 실수가 없어서 더 안정적이라 것을 느끼게 됩니다."

김 대표는 "무상으로 교육과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이 월급의 80~90%를 다 소비한다"며 "저축을 안 하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사회가 안정화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평균 급여가 월 100만~120만 원 사이이고 영어가 폭넓게 통용되고 있어서 현지인 채용에 대한 부담도 적다며 한국 기업의 유럽 전진기지로 헝가리를 추천했다.



## 19% 표 얻어 2위 확정... 6월 결선서 라틴계 고메스 후보와 대결 19년 만에 미 연방 하원의원 탄생하나... LA 보선 결선 진출한 로버트 안

재미 한인2세 로버트 안(한국명 안영준 · 41 · 민주)이 4월 4일 실시된 미국 캘리포니아 주 34지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로스앤젤레스(LA)시 도시개발 커미셔너를 맡고 있는 안 후보가 6월 결선에서 승리할 경우 1998년 김창준 전 의원 이후 19년 만에 한인 출신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하게 된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34지구 192개 투표소 개표를 완료한 결과 안 후보가 5천504표(18.99%)를 얻어 8천156표(28.14%)를 득표한 지미 고메스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안 후보는 6월 6일 고메스 후보와 연방 하원의원 자리를 놓고 결선을 치른다. 34지구는 LA 한인타운과 리틀도쿄, 다운타운 등을 관할하는 선거구로, 하비어 베세라 전 의원이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에 발탁되면서 공석이 됐다. 미주 한인사회는 1998년 김창준 전 연방 하원의원이 낙선한 이후 연방 상하원 의원을 배출한 적이 없다. 연방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일본계, 중국계, 베

트남계 의원은 있지만, 한인은 없다.

모두 2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낸 이번 선거에서 안 후보는 3위 마리아 카빌도 후보(2천778표, 9.58%)를 비교적 큰 표 차이로 따돌렸다. 그러나 결선에서는 힘든 싸움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선 상대인 고메스 후보가 하원의원 출신의 거물급 정치인인 데다 여러 후보로 분산됐던 라틴계 표심이 라틴계인 고메스 후보로 집중될 전망이다.

안 후보는 "한인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인사회의 지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32대 LA 한인회장을 지낸 제임스 안 한인회 이사장의 아들로, LA에서 태어나 예모리대,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로스쿨을 졸업하고 LA수퍼리어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2013년부터 LA시 도시계획국 커미셔너로 활동하고 있다. [▶](#)



## 재외동포 언론단체 9년 만에 통합, '세계한인언론인협회' 로 새출발

재외동포의 양대 언론단체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세계한인)와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재언협)가 9년 만에 하나로 통합됐다. 두 단체는 4월 19일 충남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국학원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통합을 추진하고, 단체명을 '사단법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약칭 세언협)로 정했다. 앞으로 통합 정관을 만든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기로 했다.



2008년 내부 갈등으로 갈라졌던 재외동포 언론단체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와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가 갈등을 마무리하고 4월 19일 '사단법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약칭 세언협)'로 통합했다. 사진은 공동대표로 추대된 김소영(왼쪽), 전용창 씨.

임시총회에는 두 단체 소속 회원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용창 전 세계한인 회장, 김소영 전 재언협 회장을 2018년 말까지 세언협을 이끌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최성식 통합추진위원장은 "세언협은 재외동포 언론의 발전과 상호협력, 해외 언론인들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 거주국과 대한민국 간 관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새롭게 출범한다"며 "9년여간의 갈등이 있었던 만큼 더 단합한 모습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단체 통합은 회원을 비롯한 재외동포사회와 국내 관련 기관의 숙원이었다. 2002년 한국기자협회가 재외동포 기자를 초청하면서 '재외동포 기자대회'가 정례화되자 당시 참가자들이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이들 단체의 출발점이다. 그러다 2008년 내부 갈등과 분규를 계기로 '세계한인언론인협회'가 별도로 설립됐고, 이후 지금까지 각각 독자적으로 봄과 가을 대회를 치렀다. 세계한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재언협은 서울시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 브라질 상파울루 시 8월 15일 '한국 문화의 날'로 지정

브라질 상파울루 시 당국이 광복절인 8월 15일을 '한국 문화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상파울루 시 웹사이트나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문화행사 일정에 '한국 문화의



브라질 상파울루 시 주앙 도리아 시장과 흥영중 총영사가 '한국 문화의 날' 지정 문건을 들고 있다.(상파울루 총영사관 제공)

날'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문화의 날' 지정으로 브라질 내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한국 문화행사에 대한 시청의 재정적 지원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단 참여가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이 기대된다.

2010년 1월에는 한인 밀집지역인 상파울루 시내 봉헤치루 지역이 상파울루 시 조례에 따라 한인타운으로 지정된 바 있다. 앞서 주앙 도리아 상파울루 시장은 4월 7일 흥영중 상파울루 총영사와 한인회, 현지 진출 한국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문화의 날' 지정을 위한 문건에서 명하고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도리아 시장은 봉헤치루를 상파울루의 '리틀 서울'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리아 시장은 한인타운 내 한국 상징물 설치와 한국 음식·제품 홍보 공간 마련, 한인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문화교류,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흥 총영사는 한인타운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한국 문화의 날' 지정을 계기로 한-브라질 양국의 협력과 교류가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한국 문화의 날' 행사는 해마다 8월 중순께 주말 시간을 이용해 한인회 주관으로 열린다. 올해 행사는 8월 11~12일 봉헤치루에서 열릴 예정이다.

## “비빔밥처럼 조화롭게” 시드니 한민족축제 성황



4월 1일 호주 시드니 달링하버에서 열린 '2017 시드니 한민족 축제'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호주 지도 모양의 용기에 주(州)별로 담긴 비빔밥 재료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

시드니 한인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한국 문화를 호주 사회에 알리기 위한 '2017 시드니 한민족축제'가 4월 1일 시내 달링하버의 팀발롱 파크에서 개막했다. 이틀간 열린 이번 행사는 시드니 한민족축제위원회(위원장 이강훈)와 시드니 한국문화원(원장 안신영) 공동 주최로 열려 한인들과 시드니 명소 달링하버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였다.

이날 행사는 K-팝 공연과 경연, 차전놀이, 평택농악보존회의 풍물놀이와 기예 등 한국의 현대 및 전통문화가 어우러져 방문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농악 및 한복 체험, 규방 공예, 종이접기 등의 체험 공간도 마련돼 어린이 등 가족 방문객들의 발길이 잦았다. 특히 개막행사 때는 호주 지도 모양에 주(州)별로 비빔밥 재료를 구별해 놓은 뒤 양국 주요 참석자들이 함께 비빔밥을 만드는 시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안신영 원장은 “다양한 재료가 조화를 이뤄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 내듯이, 다문화 국가인 호주의 정체성을 비빔밥이 잘 드러낸다고 생각했다”며 호주 주요 인사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참석한 조디 매케이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의원은 “비빔밥과 불고기를 좋아하는 데 비빔밥 재료를 주별로 나눠놓은 것은 아이디어가 참 좋다”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지난해 약 5만 명이 다녀가는 등 큰 인기를 끌자 올해는 이틀로 행사 기간을 늘렸다. 행사에는 윤상수 주시드니 총영사를 비롯해 크레이그 론디 연방 하원의원, 빅터 도미넬로 NSW 주 금융·서비스 장관, 레이 윌리엄스 NSW 주 다문화장관 등이 참석했다.

## 사드보복 장기화로 중국 선양 ‘코리아타운’ 위기



사드 사태로 중국 내 반한감정이 높아지면서 평소 차량들과 사람이 북적였던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의 '코리아타운'인 시타(西塔)의 한국식당 거리가 한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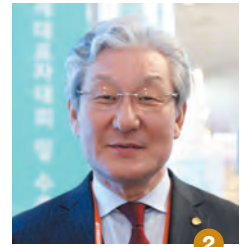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 결정을 이유로 중국의 보복이 한달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인의 발길이 끊겨 동북3성의 중심인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코리아타운'이 위기를 맞고 있다.

4월 7일 동북3성 교민사회 등에 따르면 중국 내 반한정서와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이 강도를 높이면 서 경영난에 시달리던 선양 시타(西塔)의 한국식당들이 잇따라 폐업했다. 지난 수년간 시타를 중심으로 생활해온 교민들은 한국식당 폐업 소식에 “중국 사람들이 정말 예전같지 않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교민들은 “시타에 있던 대형 한식당 2곳이 최근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았는데 이 중 1곳은 동북3성의 불경기로 한국기업이 철수하고 상주 한국인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버텼으나 사드보복으로 중국인마저 줄어들자 결국 폐업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식당 1곳도 시타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명소로서 과거 글로벌 외환위기에라도 살아남았으나 사드 보복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선양의 한 교민은 “최근 수년간 선양의 한국 기업 상당수가 철수했고 남은 것은 일부 대기업, 자영업자 정도”라며 “오랫동안 교민의 모임터 역할을 해온 대형식당의 폐업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또다른 교민은 “얼마전 중국인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갔는데 한 친구가 (사드 문제는) 한국이 중국을 배신한게 아니냐며 큰 소리로 호통치는 모습을 봤다”며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중국인 정서가 예전과 달라진 것을 피부로 느꼈다”고 말했다.

## ‘월드옥타’, 수출지원 전문조직 ‘글로벌 마케터’ 출범



1. 모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4월 26~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9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2. 월드옥타 제19대 회장으로 추대된 박기출 전 임시집행부 의장.

전 세계 73개국 145개 도시에 지회를 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박기출·사진)는 4월 26~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9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통해 모국의 경제발전을 이끈다는 행사 취지를 거듭 확인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각국 월드옥타 지회 소속 회원 510여 명이 참가했다.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구축과 모국경제 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모국 중소기업과 529만 달러어치의 수출 상담실적을 거뒀다. 즉석에서 85만 달러의 계약이 체결됐다. 고양시에 있는 중소기업 54개 업체는 한인 경제인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수출과 해외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성과는 상시 수출지원 전문조직인 '글로벌 마케터'의 출범이다. 모국 중소기업의 수출길을 터주어 '모국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월드옥타 창립의 목표를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글로벌 마케터는 모두 648명이 탄생했다. 월드옥타는 올해 말까지 더 선발해 1천 명을 구축해 모국 중소기업의 '수출 서포터즈'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진혁 월드옥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센터장은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수출 A에서 Z까지' 밀착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앞으로 '글로벌 마케터'가 월드옥타의 대명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친구 맺기' 사업 1주년 성과보고회도 눈길을 끌었다. 월드옥타는 지난해 4월 11일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회원 374명이 국내 중소기업 661개사와 총 1천227건의 일대일 매칭 성과를 달성했다. 참가자들은 대륙별, 지역별, 통상위원회별 간담회를 통해 서로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비즈니스 교류를 촉진하기로 약속했다.

월드옥타 이사회는 제19대 회장에 박기출 임시집행부 의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그는 18대 회장을 지낸 뒤 지난해 10월부터 월드옥타 임시집행부를 이끌어왔다.

박 신임 회장은 18대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교육 강화, '글로벌 마케터' 조직 강화, 조직의 외적 성장 등 3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월드옥타는 '글로벌 마케터'를 확장하고, 차세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조직 정비를 통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세계화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옥타 싱가포르지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지낸 박 회장은 말레이시아와 러시아에서 자동차 내장재 제조공장을 설립해 연간 매출 2억5천만 달러를 올리는 PG홀딩스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1981년 창립한 월드옥타는 6천650여 명의 정회원과 1만 7천여 명의 차세대 회원을 둔 최대 규모 재외동포 경제단체로, 매년 4월 세계대표자대회와 10월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열어 모국 상품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6월 댈러스서 제19회 미주한인체전…  
19종목 4천 명 참가**

재미대한체육회(회장 안경호)는 6월 15~18일 미국 댈러스 지역에서 '제19회 미주한인체전'을 개최한다고 4월 2일 밝혔다. 댈러스 미주한인체전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 경기 종목은 19개로 확정됐으며 콜로라도·플로리다·오클라호마 주와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 25개 지회에서 4천여 명이 참가한다. 안 회장은 "이번 대회는 과거 50% 한인 혈통의 참가 자격을 25%로 내려 조부모 중 한 사람이 한인이면 참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 한인들,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서 화합 한마당**

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남창규)는 6월 16~1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슈발바흐, 애쉬본, 하이델베르크 등지에서 '2017년 유럽 한인 체육대회'를 연다고 4월 10일 밝혔다. 프랑크푸르트 한인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체육 행사와 함께 유럽 한인 대표자회의, 차세대와의 만남의 장, 관광 등의 행사도 곁들여진다. 남창규 회장은 "이번 체육대회는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한식총연합회 日 홋카이도서 '글로벌 한식문화포럼'**

세계한식총연합회(회장 김순옥)는 6월 7~10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시 조잔케이 호텔에서 전 세계 한식당 종사자들이 모이는 '제4회 글로벌 한식문화포럼'을 연다. 동경민단한식넷(회장 최천호)이 주관해 특강, 글로벌 한식문화포럼과 한식 아카데미, 식자재 산업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해외 한식당 종사자 100여 명, 일본 외식 분야 관계자, 식자재 유통업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바람직한 한식세계화 방안을 모색한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청소년 과학캠프 8월 개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는 한인 청소년을 과학계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8월 '제2회 청소년과학기술지도자 캠프(YSTLC 2017)'를 연다고 4월 3일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에서 8월 6~12일 열리는 캠프에서는 청소년들이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매더 박사 등 세계적 석학과 만나고, 미 항공우주국(NASA) 관계자의 지도 아래 실험에도 참가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웹사이트(ystlc.ksea.org)에서 하면 된다.



**인천 송도 재미동포타운 공동주택 더 짓는다**

인천시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재미동포들의 고국 내 정주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송도국제도시 내 재미동포타운에 공동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3월 27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지 못했던 재미동포타운 2단계 사업의 개발 및 실시계획을 최근 변경했다. 애초 오피스텔 1천972실과 호텔 312실을 짓기로 했던 계획을 공동주택 496가구, 오피스텔 795실을 건립하는 것으로 바꿨다. 2단계 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1년 10월 준공할 계획이다. (사진, 2단계 사업 조감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맞아 발자취 따라간다'**

사단법인 국제한민족재단은 80년 전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고려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극동 시베리아 실크로드 오디세이-회상열차' 행사를 진행한다. 탐방단은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우슈토베 등을 거쳐 카자흐스탄 알마티까지 12박 13일간 약 6천500km를 이동할 예정이다.



## ‘아시아의 피카소’ 고려인 신순남 화백

중양아시아의 핍박받는 한민족 수난사를 그림을 통해 예술로 승화시킨 고려인 3세 신순남(申順南, 1928~2006) 화백에 대해 영국 BBC방송은 ‘아시아의 피카소’라고 극찬했다. 신 화백은 1937년 스탈린의 소수민족 강제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중앙아시아 황무지로 내몰렸던 고려인들의 아픔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강제이주에 항거하는 그림을 그렸다.

그는 대표작이라 할 길이 44m의 ‘레퀴엠-이별의 촛불, 붉은 무덤’을 1997년 모국에 기증했다. ‘레퀴엠’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와 쌍벽을 이룰 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레퀴엠’은 1960년대 구상해 1986~1990년 그린 그림으로, 강제이주 고려인들의 삶과 죽음을 작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형상화한 벽화이다. ‘레퀴엠’에는 얼굴이 그려 있지 않다. 고인은 이에 대해 “우리는 노예였다. 노예에겐 이름도, 민족도 없다. 그래서 얼굴을 그려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민족 수난사를 그린 화가지만 사실 신순남 화백은 ‘하늘색 고향’이라는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내와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영화는 김소영 감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신 화백과 4년간 함께 살면서 촬영했고, 이 영화로 각종 국제영화제를 휩쓸며 명성을 얻었다. 김소영 감독은 “그는 한민족의 애환을 그린 작가지만 나아가 파시즘에 희생된 모든 세계인의 아픔



1997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의 신순남 화백. 우즈베키스탄 한인 3세인 그를 영국 BBC 방송은 ‘아시아의 피카소’라고 극찬했다. 오른쪽 사진은 신순남 화백의 작품 ‘승리’의 일부.

### 고려인의 강제이주 수난사, 그림으로 형상화

을 그린 화가”라고 말했다.

우즈베키 공훈미술가인 그의 작품은 러시아 대기들의 작품과 함께 유명 미술관에 나란히 걸려 있다. 연해주에서 출생한 고인은 1937년 9세의 나이에 할머니와 함께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하면서 참혹한 비극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우

즈베키스탄 벤코프 미술학교와 아스트로브스키 미술학교를 졸업한 그는 사회주의 시절 정치적 탄압의 위협 속에서도 한민족 고통의 유민사를 길이 수십m의 거대한 화폭에 기록했다. 그의 대표작인 ‘고아’, ‘애도’, ‘할머니와 손녀’, ‘검은 태양에 대한 한국의 노래’, ‘부채춤’, ‘여인의 절규’ 등은 한민족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다. 신순남 선생은 타슈켄트 내 예술인 마을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우즈베키 정부는 고인의 명망을 인정해 유명인사가 묻히는 타슈켄트 시내 칠란자르 묘역에 안장했다. 우리 정부는 그에게 해외거주 동포 화가로는 처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최고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1999년에는 KBS 제8회 해외동포상을 받았다. [장]



# 13일간 1천km 자전거 타고 투표 참가한 호주 한인 청년 이한결 씨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국민 투표 첫날인 4월 25일 오전(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에는 동부 브리즈번에서 1천km를 자전거로 달려온 20대 청년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브리즈번에 사는 이한결(27) 씨. 브리즈번에서도 사흘 뒤인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투표가 실시되지만, 그는 호주 한인들에게 투표가 국민의 권리이고 의무라는 점을 알리려 고행을 감수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호주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한 이 씨는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놓고 있으며, 현재는 특기인 사진 실력을 활용해서 한 법률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이 씨는 “권리와 의무는 나중에 어떤 모양으로든 돌아오게 돼 있다”며 “게으름과 무관심에 쉽게 타협해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전거 여행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4월 10일 브리즈번에서 출발해 13일만인 22일 시드니에 도착했다. 이전에는 자전거로 10km 이상을 달려본 적이 없어 첫 장거리 여행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 주변에서도 위험하고 육체적으로 무리일 수 있다며 만류했다. 이 씨는 “2007년부터 3년간 미국에서 지냈고 다시 호주에서 지내고 있는 만큼 20대를 외국에서 보냈다”며 “고국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다가 자전거 여행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후로는 속전속결로 아이패드와 카메라 렌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국민 투표 첫날인 4월 25일 호주 동부 브리즈번에서 시드니까지 1천km를 자전거로 달려온 20대 교민 이한결 씨가 시드니총영사관에서 투표하고 있다.

고품도 겪었고, 텐트 밖 뱀 때문에 한동안 텐트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다.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갑자기 갓길이 거의 없는 구간에 다다랐을 때는 바로 옆에서 차들이 쌩쌩 달려 사고를 만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뜻한 호주인들도 많이 만났다. 캠핑장에서 만나 밥을 해주던 할머니는 ‘왜 낯선 이에게 그렇게 잘해주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할머니라 그렇다”라고 선뜻 대답해 감동을 줬다.

또 고속도로 서머에서 만난 한 호주인 가족은 이 씨의 사연을 듣고는 다음 날 자기 집에 초대, 점심을 제공하고 빨래와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출발 3일째의 일이었다. 긴 오르막길을 힘이 다 빠져 쉼대며 올라갈 때 옆으로 휩 지나친 자전거 한 대가 돌아왔고, 그 운전자는 “도와주겠다”며 약 1km를 밀어주었다. 이 씨는 “별다른 부상은 없고 오른쪽 손목의 악력이 약해져 손가락이나 젓가락을 잘 쥐지 못하는 정도”라며 웃었다. 이 씨는 “제가 사는 브리즈번에는 투표소가 개설되는 데도 투표할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소중한 한 표 행사는 의무라는 것과 그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전하고 싶었고, 정치인들에게는 국민이 항상 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창**

“

**브리즈번-시드니 여행...  
“한 표의 중요성 알리고 싶었다”**

”

를 팔아 자전거를 마련했다.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평생 잊지 못할 많은 인생 경험도 쌓았다. 지루하고 지독하게 페달을 밟고, 자전거 위에서 폭우를 만났으며, 도로에 서는 욕도 얻어먹었다. 극심한 갈증과 배

# 한국전 참전 미공개 사진 600장 모아 '6·25전쟁의 터키군' 사진집 발간

사진 속 단발머리 한국 소녀는 터키군 아저씨의 무릎 위에 앉아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띤 채 안전하게 앞을 응시하고 있고, 군인은 소녀를 따뜻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다. 터키군이 군사박물관 등에 자체 보유한 사진 기록과 개인 수집가의 미공개 사진을 모아 '사진에 담긴 한국전의 터키군인' 사진집을 최근 발간했다. 사진집에는 전장의 터키군과 포로들, 민간인, 터키군이 한국에 설립한 교육기관 앙카라학교 등을 담은 사진 약 600장이 담겼다.

터키군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총 4차에 걸쳐 2만2천6명을 6·25전쟁에 파병했다. 휴전 이전 조직돼 직후 도착한 4차 파병 인원을 제외하면 1만6천312명이다. 1~4차 파병 인원 2만2천여 명 가운데 741명이 전사하고 163명이 실종됐다. 파병 규모로는 유엔군 가운데 네 번째이고, 전사자는 두 번째다.

이번 사진집에는 터키군 소속 하르비에 군사박물관에 소장·전시된 사진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전문 수집가 네즈메틴 외즈첼리크(59) 씨 등 개인 보유 미공개 사진도 다수 포함됐다. 대부분은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록이다. 특히 터키군인과 한국인 전쟁고아 사이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진을 비롯해 터키군이 수원에 설립한 앙카라학교의 모습은 일반인 독자의 시선을 끈다.

1951년 4월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하다



한국전 사진 개인 수집가 외즈첼리크 씨(사진 왼쪽). 사진집에는 전장의 터키군과 포로들, 민간인, 터키군이 한국에 설립한 교육기관 앙카라학교 등을 담은 사진 약 600장이 담겼다. '6·25전쟁 영웅' 메흐메트 귀넨츠 중위(오른쪽)와 전쟁고아의 모습. 터키군 소속 귀넨츠 중위는 1951년 4월 중공군과 전투에서 전사했다.

“  
올여름 서울 전시...  
“잊혀진 한국전 참전  
터키군의 사연, 발굴·보존해야”

전사한 메흐메트 귀넨츠 중위가 생전에 한국 소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에서는 아군을 위해 죽음을 택한 터키 군인의 자상한 이면까지 엿볼 수 있다. 민간인 복장의 북한인 무리가 땅바닥에 머리를 수그린 사진에는 '북한 게릴라'라는 설명이 이채롭다. 빨치산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일부 사진은 이달 초 앙카라에서 한국·터키 수교 60주년 기념 '한국 문화의 날' 행사에서도 전시됐다. 터키군은 조윤수 주터키 한국대사에게 사진집을 전달했다. 사진집에 수록된 사진과 수집가 외즈첼리크 씨의 미공개 6·25전쟁 사진 컬렉션은 올여름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한국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사촌을 포함해 친지 3명이 한국전 참전용사라는 외즈첼리크 씨는 3월 23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한국전쟁에 참전한 터키군의 이야기는 대부분 잊혀지고 일반에 알려진 게 거의 없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남겨진 사진과 자료로부터 잊혀진 인물과 사건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것은 양국 후세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장**

하재림 연합뉴스 터키 이스탄불 특파원

## 스웨덴 · 미국 입양 한인 자매 DNA 검사로 30년 만에 극적 상봉

“올해 여름 생모를 찾으러 모국을 방문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르지만 같은 어머니를 둔 이성동복(異姓同腹) 입양 한인 사라 홀트퀴스트(35) · 케이티 아르멘다리즈(32) 자매는 지난 2월 2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공을 뛰어넘으며 극적으로 상봉하면서 하나의 목표가 생겼다. 바로 꿈속에서나 그리던 생모를 이제 함께 찾겠다고 나선 것이다.

입양기관에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서울에서 태어난 자매의 생모 김 모 씨는 정신병으로 병원에 자주 입원했고, 남양주 시에 사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입양기관에 맡겨졌고, 얼마 되지 않아 스웨덴과 미국으로 보내졌다. 자매의 삶은 여느 입양 한인들과 다를 바 없었다. 성장기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며 차별과 싸우고, 자신들이 버림받았다는 사실까지 알고 난 후 가슴에 미움을 싹 틔우며 살았지만, 생모의 존재와 혈육에 대한 애절한 정을 그리워했다. 그래서 자매는 한 세대인 30년이 흘러 낯선 땅에서 서로 만났지만 금세 혈육임을 알았고, 부둥켜안고 얼굴을 비비며 서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다. “우리를 버린 부모를 이젠 다 이해할 수 있다”며 용서하고, 함께 찾자고 의기투합했다.

스웨덴과 미국에 입양돼 각각 다른 문화 속에서 살던 자매는 어떻게 만났을까? 간단한 DNA 테스트가 없었다면 둘은 영영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동생 아르멘다리즈는 2006년 모국을 처음 방



2월 2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극적으로 상봉한, 아버지는 다르지만 같은 어머니를 둔 입양 한인 사라 홀트퀴스트(35, 오른쪽) · 케이티 아르멘다리즈(32) 자매.

“

유전자 검사로 확인...  
올 여름 생모 찾으러  
모국 방문 계획


”

문해 자신의 입양을 담당했던 기관을 찾았고, 그곳에서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피붙이를 찾는 노력을 펼쳤지만 허사였다. 그러다 9년 후 DNA 테스트를 통해 친척을 찾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는 한 방울의 피를 관련 기관에 남겼다. 수천 마일 떨어진 스웨덴에 사는 언니 홀트퀴스트는 혈육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정체성을 인지한 후부

터 한국 출신이란 사실을 숨기고, 부끄러워했으며 자신의 삶을 복잡하게 만든 생모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다른 아시아인들과 떨어져 백인 사회에서 자라온 것은 저의 정체성과 자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진솔하게 물어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렇지만 남은 생을 계속 열등한 사람으로 살기는 더 싫었습니다.” 홀트퀴스트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했다. 그는 당시 “절대로 한국인이 될 수도, 또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온전한 인간’임을 느꼈다”고 했다. 그런 이유로 그도 피붙이를 찾아보기로 하고 귀국 후 5개월 만에 DNA 검사를 받았다. 놀랍게도 유전자가 일치하는 여동생이 있다는 결과를 지난 1월 확인했다.

형제자매를 찾고 있다는 글 속의 여러 정보를 퍼즐처럼 맞춰보자 자신과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저는 그때 바로 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곧바로 이메일을 보냈죠.” 언니의 편지를 받은 미국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아르멘다리즈는 “우리가 자매일 수 있다는 언니의 말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다”고 했다.

자매는 매일 대화를 나눴고, 스페인에 갈 예정이었던 동생의 제안을 받고 언니도 마드리드로 날아갔다. 그리고 그들은 자매로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세계한인회장대회서 평화통일 · 평창홍보 기여 논의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9월 26~29일 서울에서 열리는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평화통일과 동북아평화협력 구축을 위한 재외동포의 기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재단은 4월 4일부터 6일까지 도쿄에서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등을 논의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협업으로 평화통일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동포사회의 이해를 높이는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글로벌한민족네트워크를 통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해외 홍보'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주철기 재단 이사장은 "전 세계 72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발전의 중요한 축"이라며 "주류사회에서도 영향력이 커진 만큼 해외에서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이 4월 4~6일 도쿄에서 개최한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대륙별한인연합회 회장들이 4월 5일 도쿄 코리아타운인 오쿠보 한인상가를 방문 방문하기 위해 'K셔틀'을 타고 있다.

운영위에는 오공태 재일민단 단장, 남창규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이숙순 중국한국인회 회장, 이희연 러시아·CIS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형만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이동우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표성룡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 등 대륙별 연합회장과 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5일에는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로부터 한인 상가 밀집 지역인 신오쿠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K셔틀' 버스를 타고 현장을 방문해 한인상공인을 응원했다. 코리아타운 일대를 무료 순회하는 이 버스는 재외동포재단 지원으로 마련됐다.

운영위원들은 "재외동포들은 거주국과 모국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마다치 않는다"며 "한일 관계 경색으로 코리아타운 경기도 많이 침체했다지만 지역축제와 연계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주류사회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 감동"이라고 반겼다.

### 日 요코하마 코리아타운 활성화 지원

한편 재단은 요코하마시의 코리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가로등 교체사업을 지원했다. 요코하마시 나카구에 있는 후쿠토미초는 한국 식당·슈퍼 등 한인 상가가 밀집해 있어 코리아타운으로도 불리는 곳이다.

이곳은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와 드라마 겨울연가에 이은 K팝 열풍 등 한류 붐으로 한국 상점이 100여 곳으로 늘어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40여 점포만이 남은 상황이다. 지역 재건을 목표로 재일본 가나가와현 한국인연합회가 지역상점가와 손을 잡았고 재단이 힘을 보탰다.

지난 3월 25일에는 가로등 교체 및 디지털 게시판 점등식

이 열렸다. 디지털 게시판에는 코리아타운 등 지역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주철기 재단 이사장은 "점등식 개최를 계기로 동포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곳이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의 가교가 되는 명물거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서윤석 한국인연합회 회장은 "올 연말에는 '요코하마 코리아타운 국제영화제'를 개최해 다문화공생을 실현하는 국제제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3월 25일에 열린 요코하마 코리아타운 국제거리 점등식

## 독립기념관과 손잡고 한글학교 역사교육 강화

재외동포재단은 4월 21일 독립기념관(관장 윤주경)과 전 세계 한글학교의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독립기념관은 한글학교에 수업에 필요한 역사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게 된다.

올해는 우선 미주지역 1천여 개 한글학교에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을 집중 탐구 할 수 있는 학습 자료와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충무공 이순신, 거북선 등을 주제로 한 체험학습 교재를 보내기로 했다.

또 8월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미주한국학교연합회의 학술대회·교사연수회에 재미한인의 독립운동사 특강, 각종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시연 등을 펼치기로 했다.

주철기 재단 이사장은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인식 확립이 중요하다”며 “독립기념관이 축적해 온 교육·강연 자료는 한글학교 역사 수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은 4월 21일 독립기념관과 한글학교를 위한 역사교재 개발과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재외동포재단·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차세대 연수 MOU

재외동포재단은 4월 20일 서초구 외교센터 재단 회의실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신은경)과 재외동포 차세대 연수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차세대 한국어 집중캠프 등 다양한 연수 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내외 한민족 청소년 교류 증진 및 한

민족 정체성 함양 협력 ▲강사, 숙박·교육시설, 프로그램 등 인적·물적 자원 공유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 매뉴얼 공동 연구 ▲청소년 행복캠페인 운영 및 확산 공동 추진 등이다.

주철기 재단 이사장은 “청소년 육성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확보와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노하우를 가진 진흥원과의 협약으로 재외동포 차세대 모국연수가 더욱 알차게 꾸며지게 됐다”며 “앞으로 국내외 한민족 청소년의 성장과 행복을 도모하는데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외동포재단, 전문직 15명 동포 유학생 멘토로 위촉

재외동포재단은 4월 27일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는 15명을 재단 초청 동포 유학생의 멘토로 위촉했다.

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멘토 위촉식’을 열었다.

멘토로 나선 이는 장소원 서울대 교수, 최형재 고려대 교수, 박태홍 LG전자 연구원, 성기영 KBS 아나운서, 김해성 마애로 여성의원 의사, 김재환 변호사 등이다. 조선족인 김부용 인천대 교수와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등 재외동포 출신도 6명 포함됐다.

멘토들은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과테말라 등 27개국에서 온 동포 장학생 106명의 모국 생활 적응을 돕고 진로 상담 활동에 나서게 된다.

주철기 재단 이사장은 위촉식에서 “정체성 확립과 학업의 뜻을 품고 모국을 찾은 장학생들에게 멘토는 좋은 롤 모델이 될 것”이라며 “각 분야에서 쌓아온 가치와 경험을 나눠서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창]**




재외동포재단은 국내 초청 동포 장학생의 모국 생활과 진로상담을 돕기 위해 학계·언론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15명을 멘토로 위촉했다.

# 생명의 신비

노은주 \_ 인도네시아 \_ 2016 동포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망고나무가 새순을 낳고 있다  
고통스런 진통에 소리 한 번 지를만한데  
이 악물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조용히  
새순을 낳는다

유난히도 긴 밤 보내고  
이른 아침 설레어 나가 보니  
망고나무 가지 끝마다, 아슬아슬  
가녀린 아가들 달려 있다

얼마나 뜨겁게 낳았는지  
온 몸이 다 검붉다  
얼마나 대견한지  
내 눈시울도 붉어진다 



# 바른 말 고운 말

## 숫자의 띄어쓰기

숫자를 쓸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경우와 한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경우, 뒤에 '원' 이라든가 '개' 와 같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가 올 때는 숫자 뒤에 모두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0개' 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쓸 때는 아라비아 숫자 바로 뒤에 '개' 를 붙여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숫자를 한글로 쓸 때는 아라비아 숫자의 경우와 다릅니다. 전에는 10진법에 따라 띄어 쓰던 것을 '만' 단위로 띄어 쓰도록 해서 '만, 억, 조' 단위로 띄어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모두 붙여 쓰는 것이 관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 숫자 뒤에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가 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십만 개'의 경우는 '십만' 과 '개' 사이를 띄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로 쓰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는데, '일학년, 삼층, 일곱시' 등과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 쓰게 돼 있습니다.

## 발이 길다

'발이 길다'는 표현이 있는데 대화 속에서 이것이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발이 길다'는 말은 음식 먹는 자리에 우연히 가게 돼서 먹을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남들이 다 먹은 뒤에 늦게 이르러서 먹을 복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발이 짧다'고 합니다. '먹을 복이 있다'거나 '먹을 복이 없다'는 말을 각각 '발이 길다', '발이 짧다'고 말하는 것이 재미있지요? 마치 발이 길어서 음식이 없어지기 전에 왔거나 발이 짧아 빨리 못 와서 미처 도착하기 전에 음식이 다 없어진 광경이 상상되니까요. 꼭 음식과 관련해서만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연히 갔다가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하는 말로 '가는 날이 장날이다' 또는 '가던 날이 장날이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발이 길다'와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면 '친구 집에 갔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친구 생일이라 음식을 많이 차려 놓았더군' 과같이 사용할 수 있겠지요.

##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 3월호 정답

서	개	나	리	미	역
거	울	들	부	인	
머		사	이	비	
리	본	격	밀	가	루
		광		랑	
복	지	부	동		이 무 기
송		쿨	삭	기	차
아	버	지			가 면
섯		웅	알	이	

### ▶ 오른쪽 방향 열쇠

- 강원도 북부에 있는 명산.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등으로 나뉜다
- 운동할 때 신는 신. 또는 평상시에 활동하기 편하게 신는 신
-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 늘 조금씩 나와서 눈을 축이거나 이물질을 씻어내는데, 자극을 받거나 감동하면 더 많이 나온다
-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만든 반찬감. 또는 그것을 굽거나 찌서 만든 반찬
- 자구 표면의 상태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 이를 약속된 기호로 평면에 나타낸 그림
-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또는 그런 행위
- 무엇이 불에 탈 때 생겨나는 흐릿한 기체나 기운
- 고향을 그리워하며 생각함
- 바람이나 경축, 환호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외치는 소리
- 궁궐이나 성의 문을 지키던 무관 벼슬
-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
- 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 기계를 사용해 자르거나 찢고 조직을 가해 병을 고치는 일
-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흔히 부르는 말. '아시아의 ○○' 조오련
- 병으로 죽음, 또는 그런 일
- 뚫어지거나 파낸 자리
- 늑다 남은 눈

- 양치식물 고사리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1m 정도이며, 이른 봄에 싹이 뿌리줄기에서 돌아난다. 어린잎은 식용하고 뿌리줄기는 녹말을 만든다
- 사람의 식량이 되는 쌀, 보리, 콩, 조, 기장, 수수, 밀, 옥수수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 ▶ 아래쪽 방향 열쇠

- 그해 겨울에 처음으로 내리는 눈
- 개의 새끼
- 물건 등을 옮겨 나뉠
- 신라 때 화랑이 지켜야 했던 도리. 유(儒)·불(佛)·선(仙)의 삼교(三敎), 삼덕(三德), 오계(五戒)를 신조로 했다
- 어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피하거나 쫓겨 달아남
- 웬만한 일에는 겁내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대담한 성질, 또는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
-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시름
- 손이나 얼굴을 씻음
- 동물의 반대말
- 술을 담은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눈 내리는 깊은 겨울의 심한 추위
- 울창이가 자란 것으로 뒷발이 길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다
- 어머니를 그리는 노래
- 사람의 죽음을 알림, 또는 그런 글

# 한겨울 바람, 추위, 눈이 함께 만드는 진미 '황태해장국'

## 황태구이정식과 곁들이면 '최고의 밥상'



1. 맛이 달면서도 부드러운 황태구이, 갖은 양념을 바른 뒤 구워 만든다.
2. 해장국 육수에 콩나물, 두부 등을 넣고 끓이면 황태해장국으로 다시 태어난다. 뽀얗게 우러난 황태 국물은 보기만 해도 맛깔스럽다.

명태가 황태가 되어 식탁에 오르려면 무려 서른세 번의 손이 간다고 할 만큼 지극정성이 필요하다. 흑한의 칼바람 속에 겨우내 얼었다가 녹기를 수십 차례. 황태 음식의 대표주자는 역시 황태해장국이다. 황태가 무, 들기름과 함께 들통에 담겨 2시간 정도 푹 끓여지면 쌀뜨물처럼 뽀얀 국물이 구수하게 우러나온다. 이 육수에 콩나물, 두부, 파 등을 넣고 다시 끓인 뒤 달걀을 깨어 올려놓으면 맛 좋고, 영양 많고, 보기도 좋은 황태해장국이 태어난다.

황태해장국의 비결은 황태와 무, 들기름의 조화에 있다. 2시간가량 끓여내는 육수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잘 건조된 황태가 중요하다. 황태해장국이 주는 별미의 절반은 황태 덕장에서만 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황태해장국은 음식 가운데 알코올 분해효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애주가들의 '숙취해소제'로 사랑받고 있다. 한의



학에서도 간장해독, 혈압조절, 체내 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황태를 꼽는다. 황태해장국은 일반 생선보다 저지방인 데다가 칼슘과 단백질 등의 아미노산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태구이정식은 황태해장국과 더불어 황태 음식의 쌍두마차 격이다. 탕글탱글 잘 건조된 황태에 간장, 설탕, 물엿, 양파, 무, 고추장 등 갖은 재료를 뒤섞어 만든 양념을





20여 개소의 황태 덕장이 있는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듬뿍 바른 뒤 식용유와 함께 프라이팬에 넣고 굽는다. 이렇게 한참을 굽다 보면 보글보글 튀겨 오르는 기름과 함께 맛깔스러운 황태구이가 탄생한다. 여기에 황태국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황태해장국이 담백하면서도 구수하다면 황태구이는 맛이 달고 부드럽다.

황태의 유래는 정확한 연도는 기록되지 않고 있으나,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은 북한지역인 함경도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6·25 사변 이후 함경도 피난민들은 휴전선 부근인 속초 등지에서 삶의 터전을 닦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함경도 지방과 날씨가 흡사한 진부령과 대관령 일대에서 황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덕장에 걸린 황태는 밤에는 얼고 낮에는 녹으면서 겨우내 서서히 건조된다. 싱싱한 명태가 영양 만점의 황태가 되려면 밤낮의 큰 기온 차가 있어야 하고, 한낮의 온도도 영하 2도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 적절한 수분 공급이 이뤄지는 것도 필수다.

지구온난화는 황태 생산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명태는 전형적인 냉대성 어류여서 따뜻한 수온과 기온이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한때 동해안에서 풍부하게 서식하던 명태는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거의 잡히지 않는다. 현재 생산되는 황태는 러시아산 명태로 만든 것이다. 러시아산은 중국에서 황태로 탈바꿈한 뒤 국내에 반입되어 시장을 날로 잠식해 가는 상황이다. 국내 유일의 황태산업특구인 용대리에서는 매년 봄이면 '인제황태축제'가 열리며 올해(5월 5일~7일)로 19회째이다. **창**

### 인제 여행정보

#### 1박 2일 여행 코스

- A코스** 인제 도착 → 산촌민속박물관 관람  
→ 백담사 → 용대리 민박촌 숙박  
→ 황태 마을
- B코스** 인제 도착 → 내린천 래프팅 → 방태산 자연휴양림 숙박 → 휴양림 내에서 삼림욕

#### 관광안내

인제군 문화관광과 033-460-2081  
인제군 관광정보센터 033-460-2170

#### 대중교통 고속버스

서울 동서울종합터미널 ~  
인제 시외버스터미널(2시간 소요)

#### 식당정보

명품관식당(033-462-5353)  
산골황태(010-5378-3980)

### 황태 덕장

국내 최대의 황태 덕장이 펼쳐진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황태 본산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해마다 겨울이면 황태를 건조하는 모습이 가히 장관이다. 인구 400여 명의 용대3리에만 모두 22곳의 덕장이 집결해 있다. 생산되는 국내 황태의 70%가량이 이곳 용대3리에서 건조된다. 매년 2만여의 황태가 새로 태어난다. 모두 3천만 마리로 매출액은 600억 원에 이른다. 이곳 덕장에서는 비닐 끈에 코가 꿰인 채 계곡의 차가운 갈바람에 흔들리는 황태의 자태가 시선을 압도한다. 설악산의 명찰인 백담사 입구에 있는 용대리가 황태 마을이 된 것은 근래의 일이다. 용대3리에 있는 황태 식당만도 16곳, 황태 판매장은 26곳에 이른다.





# 제19회 재외동포문학상

2017.4.1 SAT ~ 5.31 WED

| 한국시간 기준 |

## 응모 자격

### 성인부문

- 거주국 7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

### 청소년부문

- 거주국 5년 이상 체류한 초·중·고 재외동포 청소년

※ 역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는 응모 불가

## 작품 주제

성인부문 | 자유주제

### 청소년부문

- 내가 다니는 한글학교, 내가 사는 도시(지역) 소개
- 한국(모국) 방문 또는 한국어 학습 경험담
- 자랑스러운 한국인, 전반적인 한국 및 재외동포에 관한 주제
- 기타 자유로운 주제(현직 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재외동포 관련) 등

## 공모 분야

### 성인 부문

분 야	출품편수	1편당 원고분량
시	3~5편	제한없음
수필	3편 이내	글자수 4천자 내외 -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 작품용모사지 4매 내외
단편소설	3편 이내	글자수 6천자 내외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 작품용모사지 13매 내외

### 청소년 부문

구 분	분 야	출품편수	1편당 원고분량
중·고등학생	글짓기	3편 이내	글자수 3천자 내외 -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작품용모사지 3매 내외
초등학교	글짓기	3편 이내	글자수 2천자 내외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 작품용모사지 2매 내외

※ 이밖의 한글 창작물이여야 하며, 원고분량 80%이전 혹은 50% 이상 분 일만  
※ 작품용모사지는 크레딧넷 홈페이지(www.korean.net)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예수는 원고지 또는 작품용모사지 기준을 준 것이지 원고지 용량

## 시상내역

### 성인부문

대상(3명) | 300만원·상패, 장르별 1인  
우수상(6명) | 200만원·상패, 장르별 2인  
가작(9명) | 50만원·상패, 장르별 3인

### 청소년부문

#### 1. 중·고등학생

- 최우수상(1명) | 100만원·상패
- 우수상(2명) | 50만원·상패
- 장려상(3명) | 30만원·상패

#### 2. 초등학생

- 최우수상(1명) | 100만원·상패
- 우수상(2명) | 50만원·상패
- 장려상(3명) | 30만원·상패

#### 3. 한글학교

- 특별상(2개교) | 200만원·상패

※ '청소년 부문'에 필요한 항목이 충족되어 있는 학교에 한해

문의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Tel. +82-2-3415-0097 E-mail. culture@okf.or.kr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모요강 참조

[www.korean.net](http://www.korean.net)

주최



후원



# 제16차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

## 참가업체 모집

내외동포 경제인 상호간 실질적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시키는 한상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제16차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행사기간	2017년 10월 25일(수) ~ 27일(금), 3일간
행사장소	창원컨벤션센터(CECO) 3F
행사규모	350여개 기관/업체, 400여개 부스
행사주최	재외동포재단
행사주관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기간	2017년 4월 17일(월) ~ 5월 31일(수)
신청장소	제16차 세계한상대회 등록사이트 <a href="http://hansang.korean.net">http://hansang.korean.net</a>
문의	세계한상대회 전시사무국, 02-6678-9385, expo1@sfdc.co.kr



자세한 사항은 <제16차 세계한상대회 등록사이트> 에서 확인하여주시기 바라며, 기업전시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국내외 경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2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